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7(2): 69~79, 2006

##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위축 및 자기유능감

이 숙·최정미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Aggression, Withdrawal and Perceived Competence

Lee Sook · Choi, Jung Mi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exhibiting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aggression, withdrawal and perceived competence. For data collecting, 339 children attending the fifth/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Kwangju were involv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school learn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ue to the children's sex. Furthermore,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and school learn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ue to the children's grade. Secon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ue to the mother's education level. Finally,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other's overprotective behavior to the children's aggression, withdrawal, and perceived competence indicated that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and school learning was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All in all, the variables accounted for 11% of the children's aggression, 11% of the children's withdrawal, and 6% of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Key words:** overprotective behavior, aggression, withdrawal, perceived competence

---

이 논문은 200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06년 3월 19일 채택일: 2006년 5월 24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ook Tel: 82-62-530-1323  
E-mail: sookleej@hanmail.net

## I. 서론

가정은 일차적인 욕구 충족의 장소로서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성장해 가는 곳이다.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성격 형성이나 행동 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 동안 아동이 맺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아동은 부모가 제공해주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결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자신의 행동을 특징짓는 다양한 특성들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렇듯 한 인간이 성장 발달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훈육을 받는 것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Chen 1997; Ladd & Goltee 1998).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긍정적인 양육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로,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에게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고,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함으로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Hartup 1983).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편이라 볼 수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높은 사회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관심과 애정뿐 아니라 적절한 통제를 통한 훈육도 필요하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과도하게 주면서 지나치게 간섭과 통제를 하는 경우, 아동에게 유익한 긍정적인 훈육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

킬 수 있다(김춘경 2000, 이정숙 1997).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기존 전통 사회의 권위적이고 성인중심적인 양육 방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틈을 타서 자녀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주면서 과보호하는 양육 방식이 민주적이고 아동중심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욕구충족이 중요하다는 심리학적, 교육적 이론이 잘못 받아들여지면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상심리가 맞물려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자녀들이 버릇없이 용석받이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

Parker(1979)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제와 동시에 독립적 행동을 방해하고 아기취급을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박아청(1998)은 과보호란 수용적이면서도 간섭적이고 관심이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무관심한 양육태도라고 지적하면서 과보호란 종래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율-통제차원과 수용-거부 또는 비간섭-강요 등의 차원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서 자녀에게 자립적 사고의 고무, 평등주의적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소유 및 보호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간섭을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 양육태도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차원들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의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을 자녀의 나이에 맞지 않게 과잉보호하면서도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양육행동으로서, 아동의 생활영역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육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과보호된 아동들은 생활에서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 중 양육행동은 양육신념이나 부부간 공격성을 통한 모델링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었다(Capaldi & Clark 1998). 또한 아버지와 학령기 아들 간 공격성의 세대 간 전이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공격성 자체

보다 공격성을 조장하는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박성연 2002),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Maccoby와 Martin(1983)은 온정적이면서 적절한 제한이 있는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을 줄인다고 하였다. 이는 역으로, 온정적이나 제한이 없는 양육행동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 중기에 행동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을 조장한다는 결과(임희수 2002)는 온정적인 양육과 함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과보호 아동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조금도 불편 없이 다해주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고, 자녀가 화를 내면 부모는 절절매고 그 요구대로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화를 더 잘 내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지니는 성격이 되기 쉽다(Adler 1973).

또한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 중 하나로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려드는 아동에 의해 나타나는 일종의 부적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Younger & Daniels 1992). 공격적인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위축행동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이러한 위축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아동은 여러 가지 적절한 문제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아동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즉 위축된 아동들은 실제의 사회적, 인지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행동에서 유능감이 낮다고 한다(Rubin 1985; Rubin & Krasnor 1986). Rubin(1985)은 극단적으로 위축행동을 보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또래들과 상호작용 하는 동안 복종적이거나 순응적인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기에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은 미성숙하고, 사회적 불안과 실패를 더 경험하며 또래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기 위해 성인에게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bin et al 1989). 또한 아동기 후기에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사회적인 유능감 뿐만 아니라 학문적, 신체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지각을 가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ymel et al 1993; Rubin 1985; Rubin & Krasnor 1986). Hurlock(1978)은 부모의 과보호는 유아로 하여금 과도한 의존, 자신감의 결핍 및 욕구불만 같은 것을 갖게 하기 쉽다고 하였다. Rubin 등(1995)은 과보호가 위축행동을 조장한다고 하였고, Stein 등(1992)은 우울증 아동집단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 아동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으로 언어적 학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밝혀져(우희정·최정미 2004) 위축행동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아동의 위축행동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간 관계를 분석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동의 유능성은 아동의 지능과 같은 인지적 능력에 못지않게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이나 성인기의 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어머니는 아동의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아동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유능성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이나 유능성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거부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거부나 부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한 아동의 낮은 유능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손승희 2002; 양혜련 2000; 이은해 등 1998; 임연진 2002; 우희정·최정미 2004; McDonald & Parke 1984; Pettit et al. 1998). 문혁준(2000)은 고립아 어머니의 경우 인기아의 어머니에 비해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주희(2001)는 어머니가 과보호를 덜 할수록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라고 하였다. Parker(1993)와 이소미(2002)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존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영희(2004)는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자기유능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유영주(1990)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가 아동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고 아동의 정서

적인 불안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이처럼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특히 상담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주로 과잉 간섭 또는 통제, 익애, 과잉보호 등의 용어로 여러 유형의 부모양육태도 중 한 유형으로 가볍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보호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있게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에 대해 독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과보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보호 양육행동이 아동의 생활영역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특성인 유능감과 부정적인 발달특성인 공격성과 위축의 두 측면에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행동이 어떤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 관련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을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에 따라 과보호 양육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3.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33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 1)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 척도

공격성 척도는 연진영(1992), 김준호(1997), 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Division	(N=339)
Sex of child	male	173(51.0)
	female	166(49.0)
Grade of child	5 grade of elementary school	167(49.3)
	6 grade of elementary school	172(50.7)
Age of mother	under 37 years	94(30.0)
	38~40 years	127(40.6)
	over 41 years	92(29.4)
Education of mother	under high school	140(44.9)
	university	132(42.3)
	graduate school	40(12.8)

상균(1999)이 사용하였던 척도와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중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1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다.

위축 척도는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 위축에 관련된 문항과 정미자(1995)의 위축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10문항을 위축 측정 도구로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유능감 척도는 Harter(1982)의 자기 능력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각 영역마다 4문항씩 총 16문항을 선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유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 이숙(1990)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 과보호 영역 8문항과 Parker(1979)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검사를 경희대 의대(송지영 1992)에서 한국형으로 개발한 검사도구 중 과보호에 해당하는 13문항을 기초로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였다.

과보호 양육행동에서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도와 주신다”, “내가 다른 아이와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가 직접 끼어드신다” 등 7문항이 포함되어 이를 일상생활 과보호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내 성적이 떨어질까 봐 잔소리를 하신다”, “내가 매일 할 일을 다 정해놓고 계신다” 등 7문항이 포함되어 이를 학습관련 과보호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2개 요인을 과보호 양육행동의 구성요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일상생활 과보호는 .74로, 학업관련 과보호는 .7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행동에서 과보호를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 t검증과 ANOVA, 추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 검증, 상관관계분석과 stepwise 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Difference in the sex and the grade of children on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Sex of chil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M(S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learning M(SD)	
Male	13.79	(4.39)	14.91	(4.83)
Female	12.83	(4.80)	13.69	(4.98)
<i>t</i>	1.91		2.27*	
Grade of chil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M(S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learning M(SD)	
5 grade	13.88	(5.26)	14.86	(5.61)
6 grade	12.77	(3.80)	13.78	(4.11)
<i>t</i>	2.22*		2.01*	

\*p<.05

### III.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의 차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상생활 과보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업관련 과보호에서만 성차가 유의하게( $p<.05$ )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학업관련 과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아에 대해 더 많은 학업성취를 기대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의 두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p<.05$ )가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과보호와 학업관련 과보호 모두에서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많은 과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만큼 간섭을 하고 과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성과 학년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과보호보다 학업관련과보호의 평균점수가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3).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과보호 양육행동의 두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나이가 많거나 어릴 경우에 자녀를 과보호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보겠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과보호 요인 중 일상생활 과보호에서 유의한 차이( $p<.01$ )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과보호를 더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일 때 일상생활과보호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며(조병은 등 1995),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고(최정미 1999) 자

Table 3. Difference in the age and the education of mothers on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Mother's age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M(S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learning M(SD)	
under 37years	13.10	(4.42)	13.83	(4.64)
38-40years	13.52	(4.85)	14.13	(5.11)
over 41years	12.96	(4.64)	14.65	(5.08)
F	.42		.63	
Mother's education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M(S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learning M(SD)	
Under high school	14.14	(4.82) A	14.39	(5.11)
University	12.75	(4.43) AB	14.37	(4.63)
Graduate school	11.80	(4.28) B	13.55	(5.32)
F	5.39**		.49	

\*\* $p<.01$

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과보호를 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김정아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 3.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격성은 학년( $r=.11$ ,  $P<.05$ ), 모학력( $r=-.13$ ,  $P<.05$ ),

일상생활 과보호( $r=.28$ ,  $P<.001$ ), 학업관련 과보호( $r=.34$ ,  $P<.001$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축은 학년( $r=.13$ ,  $P<.05$ ), 일상생활 과보호( $r=.28$ ,  $P<.001$ ), 학업관련 과보호( $r=.22$ ,  $P<.001$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능감은 학년( $r=-.14$ ,  $P<.01$ ), 모연령( $r=-.15$ ,  $P<.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대한 제 변인

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과 학년,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과보호(일상생활 과보호, 학업관련 과보호)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학업관련 과보호( $\beta=.21$ ,  $p<.001$ )와 아동의 학년( $\beta=.13$ ,  $p<.05$ ), 일상생활 과보호( $\beta=.16$ ,  $p<.05$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1%였다. 즉, 학업관련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과보호는 많이 받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최경주 1997; Olweus 1980)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잔소리와 간섭을 일상생활과 학업과 관련해서 계속 받게 되면 공격적인 특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과보호보다는 인정과 격려를 많이 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위축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과보호( $\beta=.31$ ,  $p<.001$ )와 아동의 학년( $\beta=.20$ ,  $p<.001$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1%였다. 즉, 일상생활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위축이

Table 4.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1	2	3	4	5	6	7	8
1. sex of child								
2. grade of child		-.05						
3. mother's age			-.03	.04				
4. mother's education				-.03	-.08	.06		
5.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10	-.12*	-.08	-.19***
6.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learning						-.12*	-.11*	.00
7. aggression							-.03	.64***
8. withdrawal								.03
9. perceived competence								-.06

\* $p<.05$ , \*\* $p<.01$ , \*\*\* $p<.001$

Table 5. Regression to the children's aggression, withdraw, perceived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R <sup>2</sup>	F
Aggression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learning	28	.21***		
	grade	1.70	.13*	.11	12.62***
Withdrawal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23	.16*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46	.31***		
Perceived competence	grade	2.83	.20***	.11	18.84***
	mother's age	- .52	-.16**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related to daily life	-3.51	-.16**		
	sex	- .31	-.14*	.06	5.67***

\*p<.05, \*\*p<.01, \*\*\*p<.001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과보호를 많이 받은 아동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격성에서 학업관련 과보호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시기에 학업관련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과보호를 하면 자녀가 짜증과 분노 등으로 공격성이 심해질 수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과보호를 하면 공격성뿐 아니라 위축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한편, 유능감에 대해서는 모의 연령( $\beta=-.16$ ,  $p<.01$ ), 아동의 학년( $\beta=-.16$ ,  $p<.01$ ), 일상생활 과보호( $\beta=-.14$ ,  $p<.05$ ), 성별( $\beta=-.12$ ,  $p<.05$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6%였다. 즉,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과보호를 적게 받을수록, 여아보다 남아가 유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나 위축과 같은 부정적 특성과, 유능감과 같은 긍정적 특성은 서로 다른 변인에 의해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과 학년 및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생활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써 과보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을 보다 전전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학업관련 과보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학업관련 과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일상생활 과보호와 학업관련 과보호에서 모두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많은 과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일상생활 과보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과보호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대한 아동의 성별과 학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및 과보호 양육행동(일상생활 과보호, 학습관련 과보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은 학업관련 과보호와 아동의 학년, 일상생활 과보호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관련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위축은 일상생활 과보호와 아동의 학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위축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유능감은 모연령, 아동의 학년, 일상생활 과보호, 성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과보호를 적게 받을수록, 여아보다 남아가 유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업관련 과보호와 일상생활 과보호는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적문제나 일상생활문제에서 지나치게 잔소리와 간섭을 하는 등 과보호를 하게 되면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부모들의 진학경쟁은 자칫 학업관련 과보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적 성장에만 치중한 이러한 관심은 결국 자녀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임채식 1988), 부모들이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 과보호는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갖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자율성을 저해하

며 부모의 뜻대로 따를 것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과 위축과 같은 부정적 행동특성이 증가하는 반면 유능감과 같은 긍정적 행동특성은 감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일상생활에서의 과보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듯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행동특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녀와 어머니간의 애정적이고 따뜻한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도 아동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어머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 자신이 지각한 양육행동을 비교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춘경(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 연구* 4(1), 35-49.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아청(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 석사논문*.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미간행.
- 양혜련(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행동. *경희대 석사논문*.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출판사.
- 우희정·최정미(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91-200.
- 유영주(1990) 공부에 대한 부모의 과잉관심이 아동의 시험불안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이소미(2002)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 이은혜·박경자·정현숙(1998)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보육시설 및 가족변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26(6), 27-40.
- 이정숙(199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5.
- 임채식(1988)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새세대* 43호 한국어린이육영회, 14-17.
- 임희수(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와 관련 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1992) 가족이 사회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논문*.
- 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혜경·박웅임(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최경주(1997)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지각, 소속욕구 및 공격성의 관계. *전북대 석사논문*.
- 최영희(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7-32.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 Adler A(1973) *Der Sinn des Lebens*. Frankfurt/M.
-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 Capaldi DM, Clark S(1998) Prospective Family Predictors of Aggression Toward Females.
- Chen J(1997) Par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nese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behaviors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Gamsa A(1987)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 Psychology* 60, 291-294.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53, 87-97.
- Hurlock EB(1978)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 Hill.
- Hymel S, Bowker A, Woody E(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Ladd G, Golter BS(199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Psychology* 24, 109-117.
- Maccoby EE, JA Martin(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1-101), ed. by E. M. Hetherington. Series ed. by P. H. Mussen. NY: Wiley.
- McDonald K, Parkes RD(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Parker G(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arker G(1993) Parental rearing style: examining for links with personality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8, 97-100.
- Pettit GS, Dodge KA, Brown MM(199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ubin KH(1985). Socially withdrawn children: An "at risk" population? In B. H. Schneider, K.H. Rubin, & J.E. Ledingham(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pp. 125-139). New York: Springer-Verlag.
- Rubin KH, Krasnor LR(1986). Social cognitive and social behavioral perspectives on problem-solving. In M. Perlmuter(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8, pp.1-68).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 Rubin KH, LeMare L, Lollis S(198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Asher & J.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H, Stewart SL, Chen X(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

-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pp255-284). Hillsdale, NJ: Erlbaum.
- Schaefer ES,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Stein D, Williamson DE, Birmaher B, Brent DA, Kaufman J, Dahl RE, Perel JM, Younger AJ, Daniels TM(1992) Children reason's for nominating their peers as withdrawn: Passive withdrawal versus active iso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55-960.